

성숙한 성도의 삶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 21:21-22).

:

우리가 배워야 하는 어려운 교훈 중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교훈을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선부른 도움이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즉, 선부른 도움이 다른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합니다. 어떤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을 볼 때 당신은 말합니다. “그 사람이 고통을 받아서는 안 돼. 내가 그 사람이 고통 받지 않도록 도와야겠다.” 이런 식으로 당신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허락된 일을 막으려고 당신의 손을 펼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게 무슨 상관이나?”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영적 침체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안을 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제안했고, 충고할 권리가 없으면서도 충고했던 것입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충고를 해야 할 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당신을 직접 깨닫게 하실 때입니다. 그때 성령은 당신을 통해 그 사람을 충고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당신이 할 일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분별의 지혜가 당신에게 임해서 당신은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위한 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의식적인 세계의 한계 내에서 살아갑니다. 의식적으로 섬기고,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미성숙한 것이며 아직 실제의 삶이 아닙니다. 성숙한 삶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면 그분께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마저 들지 않습니다. 만일 내가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로 쓰임받고 있다고 ‘의식’한다면, 아직 도달해야 할 단계가 많이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 단계에 도달하면 자신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무엇을 하시는지에 대한 모든 의식이 사라집니다. 성도는 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요 21:21-22)

1. 하나님과 하나 됨

오늘 묵상의 주제는 ‘성숙한 성도의 삶’입니다. 성숙한 삶이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요한복음 21장 21-22절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원문 제목은 본문의 “네게 무슨 상관이나?” (What is that to thee?) 라는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베드로의 미성숙한 물음 ‘그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에 대하여 주님은 ‘네게 무슨 상관이나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십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다른 이의 삶에 간섭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온전히 주님과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챔버스는 이러한 베드로의 간섭이 영적으로 미성숙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간섭은 때때로 우리를 영적 침체로 이끌어 갑니다. 우리는 베드로와 다르게 좋은 의도를 가지고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집니다.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 돕는다고 말하지만, 선부른 간섭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때도 있습니다. 챔버스의 말입니다.

“만일 당신이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다면 절대로 그 상태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 영적 침체의 이유를 발견하십시오. 아마도 당신은 당신이 다른 사람의 삶에 간섭했기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지게 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적으로 침체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다른 길을 가고 있을 때입니다. 성령께서 일하시도록 자신을 양도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선부른 충고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요인이 됩니다. 만일 우리가 진정으로 누군가를 위한다면,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흥미로운 말입니다. 누군가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기 원한다면 영적으로 올바른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A. W. 토저의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라는 책에서도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설교에서 이런 보석 한 개를 발견했다. 그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의 말은 누구의 말도 듣지 말라”고 말했다. 매우 귀중한 문장이었다.

대개 열 명 가운데 아홉은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조언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믿는다. 특히 종교와 도덕 분야에 대한 조언을 무척 자신 있어 한다. 그러나 그건 크게 잘못된 생각이다. 보통 사람은 이 분야에 대해 지혜롭게 말할 능력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조언은 오히려 큰 해를 끼칠 수 있다. …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는 자는 조언할 자격이 없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그분의 조언을 따르려는 마음가짐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상담해 줄 권리가 없다. 진정한 도덕적 지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담아내는 메아리여야만 한다. 우리 길의 가장 안전한 빛은 세상의 빛 되신 그리스도로부터 반사된 빛이다.

A. W. 토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지혜로운 충고를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숙한 성도의 삶은 선부른 판단과 간섭으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서 자신을 내놓는 것입니다. 성도의 성숙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2. 성숙한 상태

성도들은 누구나 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어 합니다. 또한 의식적으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식을 챔버스는 ‘미성숙’이라고 말합니다.

“성숙한 삶은 무의식적으로 살아가는 어린아이 같은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러지면 그분께 쓰임받고 있다는 의식마저 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해하고 삶에서 적용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부모님께 순종할 때 ‘의식적’으로 하나요? 만일 그렇다면 그 아이는 부모에게 좋은 자식이 아닙니다. 진짜 순종하는 자녀는 의식해서가 아니라, 그의 삶에서 무의식적으로 당연하게 행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찢겨진 빵과 부어지는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면서, 의식적으로 무언가를 한다면 아직 미성숙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자신을 희생한다고 생각하니 스스로 교만해지거나 연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성숙한 상태가 되면 이러한 ‘희생 의식’이 사라집니다. 의식하지 않고 합니다.

챔버스가 아주 재미있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이 말씀도 가만히 묵상해 보았습니다. 스스로 성숙한 성도라고 의식하며 산다면 얼마나 교만하겠습니까? 단지 삶에서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무의식적으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을 살기 위해 애쓰는 것은 귀한 일입니다. 하지만 아직 성숙한 단계는 아닙니다. 성도로서 소원이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믿고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양도하여 자연스럽게 성도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상태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하여 간섭하지 않을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요한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오로지 우리가 주님과과의 신실함 가운데서 조용히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김병삼 목사의 한줄 노트

- ❶ 누군가를 위해 유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선부른 충고보다 스스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는지 먼저 확인하십시오.
- ❷ 성도가 되려고 의식하지 않아도 성도로 사는 방법은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묵상 질문 당신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순종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묵상레시피 ■ 요한복음 2:1-11 + 요한복음 21:21-22

가나의 혼례 잔치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3절)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 무엇을 요청합니까? (3절)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습니까? (4절)

이에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말은 무엇입니까? (5절)

예수님의 명과 하인들의 반응,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6-11절)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3절)

유대인의 결혼 예식은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다.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접대하는 이들의 심각한 실책이었다. 마리아는 그들의 곤경을 구체적으로 아들 예수님께 아뢰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4절)

마리아가 가족의 일원이자 ‘아들’로서 예수님께 문제를 의논하고 요청한 것은 매우 자연스럽게 평범한 일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계심(요14:10-11, 20)’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안에 계셨고, 온전한 순종과 교통 가운데 계셨다. 예수님의 모든 결정과 움직임은 하나님으로부터이다. 예수님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답한다. 어머니와 아들로서 마리아-예수님의 자연적 관계는 이제 새로운 질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된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는 상황을 보는 눈, 판단, 결정, 선택한 의지, 감정과 정서, 해결의 방식과 때 모든 것에 대한 전적인 위임이다. 하나님은 현상 너머를 보시며, 반응과 행동을 위한 최적의 때와 최선의 방법을 아신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최상의 결과로 이끄신다.